




국어 평생교육 사이트 ‘우리말 배움터’

글_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etnews.co.kr

알 수 있다.
 문장다듬기 코너에서는 문장의 필수적인 서술어의 어휘적 특징과 문법적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을 선택하는 호응관계를 배운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글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에 전화는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매체의 직접적인 호소력과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글은 주눅이 들고 말았다. 하지만 글은 말보다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며 생각에 깊이를 더한다.

평가 코너에서는 본인의 맞춤법과 어휘, 문장, 문단 작성 실력을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다. 우리말 화법 코너에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쓰는 각종 호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알 수 있고 높임법의 정확한 표현을 공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 전화를 끊을 때 ‘들어주세요’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사이트는 지적하고 있다. 이 표현은 일부 지방에서만 쓰는 명령형으로 다소 상스럽게 들릴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국어사 연대표와 주제별로 묶어진 한글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다. 바른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말 사전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사이트에서는 한글학회가 펴낸 ‘국어사전 바로잡기’와 우리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국어 어원 연구 방법론집인 ‘국어어원사전’ 등을 소개했다. 우리말 시사정보에서는 일본어인데 우리말처럼 쓰이는 ‘후카시’를 ‘폼재기’로 순화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매일 쓰는 언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틀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말이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는 문법과 단어 선택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국어에 대해선 틀린 표현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

평생 쓰는 우리말의 올바른 단어나 표현을 지도하는 사이트가 있다. 부산대학교 한국어정보처리연구실에서 운영하는 ‘우리말 배움터’(<http://urimal.cs.pusan.ac.kr/>)에서는 누구나 쉽게 바른 우리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초·중·고등학생들은 배움터와 글쓰기 교실, 어문 규정, 철자검사기 등을 통해 바른 우리말과 글의 바탕을 다질 수 있고, 일반인을 자신이 쓴 글의 잘못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오류를 교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쓴 글의 잘못을 ‘한국어 문법 및 철자 검사기’를 통해 찾고 그에 따른 바른 풀이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틀린 오류 유형을 제시해 배움터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오용 사례와 풀이를 익힐 수 있다.

배움터교실 코너에서는 맞춤법 다지기과 어휘, 문장, 문단 다듬기를 할 수 있다. 우리말 음운 변동과 음운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기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우리말의 대표적인 음운변동 현상인 두음법칙과 구개음화와 그 외에 잘못 쓰기 쉬운 음운 표기에 대해



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자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